



2014년 하반기 유럽 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

이해량 연구원

■ Earnst&Young(이하 EY)은 유럽은행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은행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¹⁾

- 이 설문조사는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유럽 11개국 294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²⁾
- EY는 각 은행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자산건전성평가(AQR: Asset Quality Review) 및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각 국 은행의 준비 정도 등 은행 재무건전성 및 경영전망을 조사함.³⁾

■ 대다수 은행들은 2014년 하반기 유로존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가 부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조사대상 은행 중 64%가 2014년 하반기에 유로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IMF의 유로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반영한 기대임.
 - IMF는 2014년 4월 유로존의 소비 증가, 고용 증가, 투자 회복세를 반영하여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2014년 1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함.⁴⁾
-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가 은행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조사대상 은행의 17%가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비율(16%)보다 소폭 상승한 비율임.

1) Earnst&Young(2014, 6, 18), "European Banking Barometer - 1H14".

2) 설문조사 대상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유럽,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이며, 유럽 은행 전반에 대한 결과는 은행 자산 비중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함. 2014년 설문조사 결과는 201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2013, 11, 26, "European Banking Barometer - 2H13")를 기준으로 비교·분석되어 있으며, 2013년 설문조사는 동일 국가의 184개의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됨.

3)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2013년 11월부터 2차에 걸쳐 유로존 128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평가(AQR)와 스트레스테스트를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차 결과는 7월, 2차 결과는 10월에 공개할 예정임.

4) IMF(2014, 4), World Economic Outlook.

- 은행들은 유럽 은행 연합(Banking Union)의 출범으로 은행과 국가 부채 간 연결고리가 약화될 때까지 국가 부채에 대한 은행들의 우려는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함.

■ 조사대상의 60%가 2014년 하반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74%가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실시하는 AQR과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응답함.

- 은행들의 60%가 2014년 하반기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ROE를 3.8%로 전망함.
 - 은행들이 전망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2014년 자기자본비용이 전년 평균 자기자본비용(9.7%)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익 12% 증가, 비용 15% 감소가 달성되어야 함.
 - EY는 초저금리 환경, 부진한 경제성장, ECB의 양적완화 환경에서 재무성과를 달성하려면 비용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비이자 수익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함.
- ECB가 진행하고 있는 AQR 및 스트레스테스트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의 74%가 충분한 자본 확충을 했다고 응답하였고 8%는 추가 자본 확충을 준비하고 있으며, 19%는 추가적인 자본 확충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함.
 - 국가 별로 분석한 결과 독일의 경우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이 조사대상 은행의 6%로 자본 확충 상황이 가장 좋았으며, 스페인의 경우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한 은행이 스페인 조사대상 은행의 60%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국가로 나타남.
 - 조사대상 은행들은 ECB의 평가에 대비하여 올해 350억 달러(35조 6,600억 원)의 자기자본을 확충함.
-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AQR 진행으로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은행 중에서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평가 등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 외에도 EY는 2014년 하반기 은행들의 다양한 경영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 은행들은 2014년 하반기 대출 관련 정책 완화와 소비자 및 기업의 상품 수요 증가를 전망함.
 - 은행들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관련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이러한 규제완화 전망에 따라 은행의 대출 증가를 전망함.
 - 실업률 감소, 경기 안정, 초저금리 환경에서 신용과 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구매자관리지수의 개선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확대로 기업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은행들은 현재 AQR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1년간은 인수·합병이 조심스러울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의 63%가 3년 이내에 중·대형 규모의 은행 인수·합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함.
- 유로존 은행들은 AQR 및 스트레스테스트 실행에 대비하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로존 경기 회복과 더불어 2014년 하반기 은행 경영성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음.

(E&Y, WSJ 등)